

‘강력한 돕는 배필’ 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통한 60대 여성의 결혼위기 극복 사례연구

이 수 희*

국문초록

연구의 목적은 60대 아내의 결혼위기 극복을 도운 성경적 가치관을 살펴 보고, 결혼위기상담을 위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2명의 60대 초반 아내들의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이들의 결혼생활과 위기 극복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부는 어떤 결혼과정을 겪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내들은 어떠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왔는가? 마지막으로 ‘돕는 배필’ 로서의 성경적 정체성 회복이 보다 성숙한 아내로 성장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이다.

연구방법은 질적 사례연구로 상담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결혼에 관한 성경적 관점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상담일지 및 상담과정에서 관찰한 결과를 분석하여 결혼과정에 드러난 아내들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내담자인 아내들이 결혼위기를 극복하고 성숙해 가도록 활용한 ‘강력한 돕는 배필’ 로서의 정체성 회복이 결혼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강력한 돕는 배필’ 로서의 아내의 정체성 회복에 중점을 둔 기독교 상담을 통하여 2명의 60대 아내들은 결혼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하였다. 나아가 ‘강력한 돕는 배필’ 로의 정체성 회복을 통해 이들은 보다 더 성숙한 아내로 성장하고 있다.

주제어: 결혼위기 극복, 사례연구, 마음의 동기, 돕는 배필, 성경적 상담

• 논문 투고일: 2018년 3월 26일

• 논문 수정일: 2018년 4월 26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5월 1일

*수지퍼스메이커 상담센터

I. 여는 글

사회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정의 모습도 급격히 변화되었다. 대가족은 핵가족으로 바뀌었고, 이혼율은 점차 늘어났으며, 여러 가지 형태의 독신가정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젊은이들은 안정적인 일 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결혼, 연애 그리고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라고 일컬어진다(N포 세대-나무위키, <https://namu.wiki>).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혼인건수는 2016년에는 28만 1700건으로 2003년의 30만 2500건 이후 가장 낮았다. "2016년 조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은 5.5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이후 최저"(통계청, 2016: 5)로 나타났다. 이혼율은 2003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03년에 1000명당 166.6명으로 최고치를 보였다. 그리다가 2014년 115.5명, 2015년 109.2명 그리고 2016년에 107.4명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2016년 조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은 2.1건으로 1997(2.0건)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6: 20). 이러한 감소추세에 대해 대법원은 2008년 6월부터 시행되어 온 '이혼 숙려기간제'가 확고에 이루어지는 이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www.cinelaw.co.kr).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연령은 점점 늦어지거나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는 반면, 이혼율은 급증하다가 정체상태이기는 하나 여전히 1970년대에 비하면 급격히 늘어나 있다.

많은 젊은이들은 결혼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특히 부모의 갈등이나 이혼과정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자신들의 결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결혼에 관한 연구들에서 건전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은 이혼한 사람이나 독신보다 더 많은 부와 안정된 삶을 누린다고 밝힌다. 이들은 삶의 어려움이나 실망, 육체적·정신적 질병 등에 대하여 서로 돕고 책임을 나누기 때문에 홀로 사

는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누린다(Keller, 2011).

21세기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와 법적인 지위향상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것은 남녀평등에 대한 많은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들도 많다. 더불어 결혼제도 지속의 합리성에 대한 이견들이 난무하다(Balswick & Balswick, 2006). 고학력의 많은 여성들은 더 이상 전통적 결혼제도에 매여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개인의 성취를 이루어 가는 것이 좀 더 현대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확산되었다. 또 개인적인 소망과 필요충족에 더 많은 초점과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결혼관계에서도 지나치게 자신의 소망과 필요를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배우자를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키는 수단 또는 방해꾼으로 여기게 한다(Tripp, 2015).

이러한 시류는 성경적 관점에서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또 남편들도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땀 흘려 일하면서 자신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도록 한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여느 부부들과 다름없이 자기중심적인 소망과 필요가 충족되기를 기대하며 결혼생활에서 육체적·정신적 어려움과 고통과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혼은 저절로 행복해지고 점점 만족스러운 관계가 될 것이라고 여기며 성경의 가르침에서 확일적인 정답을 기대하기도 한다. 세상의 어떠한 인간관계에서도 개인의 소망과 원하는 것들을 충족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필요충족을 부추기고 옹호하는 세상적인 관점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입각한 부부간 역할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많이 왜곡되었다(Crabb, 1992).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왜곡된 소망과 기대를 가진 부부들이 여하간 결혼위기를 맞을 때, 기독교 상담자는 이들이 올바른 성경적 관점의 결혼관을 깨닫고 실천하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명의 60대 초반 아내들의 결혼위기 극복을 도운 ‘돕는 배필’이란 성경적 가치관을 살펴보고, 결혼위기상담을 위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문제는 먼저, 부부는 어떤 결혼생활 과정을 겪어 왔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내의 마음에는 어떠한 동기가 작용하였는가? 마지막으로, ‘돕는 배필’로서의 성경적 정체성 회복이 보다 성숙한 아내로 성장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이다. 연구방법은 상담사례를 분석한 질적 사례연구이다. 먼저 결혼에 관한 성경적 관점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상담일지 및 상담과정에서 관찰한 결과를 분석하여 결혼생활 과정에서 드러나는 아내들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내담자인 아내들이 결혼위기를 극복하고 성숙해 가도록 활용한 ‘강력한 돕는 배필’로서의 정체성 회복이 결혼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2명의 연구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는다. 결혼 기간이 36년 이상이 되었다. 부부는 결혼과정에서 심각한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부부의 결혼생활이 단절되었으나, 이후 이들은 재결합하였다. 재결합 후에도 부부갈등은 여전히 존재하였고 종종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돕는 배필’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돕기 위한 상담 종료 후, 이전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II. 펴는 글

1. 이론적 배경

1)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결혼

결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맺어주신 귀중한

제도이다. 하나님께서는 흠으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다

(창 2:7). 그리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우리라”(창 2:18) 하시고 그를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창 2:21) 그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셔서 돕는 배필로 그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리고 두 사람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창 2:22-24)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때 두 사람은 별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창 2:25) 창조 시 남자와 여자는 상호의존적인 존재로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이해하고 돕는 평등한 존재였다(조명기, 2008).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여지없이 깨졌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인간의 가치관은 결혼을 점점 더 형편없는 제도로 전락시켰다. 많은 부부들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이 영원히 이어가기를 약속하며 펼쳐질 미래에 대한 많은 기대와 희망을 품고 결혼한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결혼생활에서 무언가 불편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관계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어느 새 파괴적이거나 이기적인 방법으로 결혼생활을 이끌기도 하며 서서히 그 노력마저 포기한다. 이러한 결혼위기는 광범위하게 온 가족에게 그리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족의 안녕을 이루어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 남성의 권위와 만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전통적인 결혼관에서 개인적인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믿는 현대적 결혼관으로 서서히 변했다. 일부일처제 대신 동성혼, 동거, 무자녀 가정, 그리고 결혼과 이혼이 반복되는 관계 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들이 존재한다. 제도에 따라 유지되던 결혼관계는 이제 서로의 편의를 얻기 위한 관계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서로에 대한 책임과 헌신에 힘쓰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의 결혼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결혼관계에서 개인의 소망과 필요의 충족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각 사람의 소망과 필요를 충족하는 것 이상으로 서로에 대한 책임과 헌신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왜냐하면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목적과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제도이기 때문이다(Balswick & Balswick, 2006). 부부는 동반자이며 평등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므로, 남편의 권위적 자세나 아내의 수동적인 자세로는 참 동반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부역할의 시대적 변화 뿐 아니라 결혼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에 적응하지 못할 때, 부부갈등이 생긴다(김미경, 2010). 다음은 성경적 관점에서 결혼관계에 관한 왜곡된 생각들과 동기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1) 결혼관계에 관한 성경 말씀에 대한 오해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만드셨고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의 근원이다.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어졌기 때문에 남자에 비해 열등하거나 모자라는 위치를 가진다는 의미가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해들이 있다. 특히 아내의 역할에 관한 ‘돕는 자’로서의 성경적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배필(*neged*)이란 원래 ‘동등한 수평적 관계’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서로 조력하며 상호 협력하는 관계라는 뜻이다(조명기, 2008). ‘돕는 배필’인 ‘*ezer neged*’에 사용된, 히브리 원전의 ‘*ezer*’가 ‘돕는 helper’로 번역된 것은 이 단어의 의미를 충분히 바르게 해석한 것이 아니다. 히브리 원전의 ‘*ezer*’는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였다. 다른 곳에서 사용된 이 낱말을 살펴보면, 전쟁에서 절대로 지지 않는 군사적 도움이나 전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시 54:5, 118:7; 겔 32:21; 히 3:16) 그러므로 ‘돕는 배필’로서의 여성은 그저 돕는 자가 아닌 보다 더 ‘강력한 돕는 자 strong helper’

를 의미한다. 원어의 의미를 상고할 때, 아담에게 주어진 여자는 열등하거나 수동적인 역할을 하면서 '돕는 자'로 보내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남자에게 '강력한 돕는 자'로 보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Keller, 2011).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후 남자와 여자는 영적으로 연합된 관계에서 완전히 빗나가, 서로를 비난하거나 고소하고 손가락질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 전가하였다(창 3:12). 이러한 태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복종하라는(엡 5:21) 하나님의 뜻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그 결과, 남자와 여자의 온전한 연합은 깨어졌고 남자는 동등한 인간으로 여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군림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여자는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강력한 돕는 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않으면서, 때로는 남편에게 의존적이 되거나 그의 권위에 안이하게 복종하며 무조건적으로 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내의 올바른 자세라고 믿기도 한다.

또 다른 성경말씀에 대한 전통적인 오해는 '남자는 여자에 대한 권위를 가진 자'라는 착각이다. 창세기 3장 16절하 말씀을 근거로 남자는 남편의 권위가 마치 자신의 공적인 것처럼 여기게 되어 아내를 억압하거나 큰소리치며 군림하려 한다. David Powlison(2009: 104)은 "남성 우월적이고 권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버리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내용과 정반대되는 삶을 산다."고 논하며 "사랑을 베푸라는 하나님이 뜻을 거슬러 자기 자신의 뜻만을 주장할 때 '권위가 필요하고 유익하다'는 진리가 왜곡되고 만다."며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의도로 권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반면 아내는 남편을 바라고 원하며(창 3:16하) 자신의 소망과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며 남편을 바라본다.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는’ 이러한 결혼관계의 양상은 하나님의 계획이 반영된 모습이 아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Bilezikian, 1985; Leeuwen, 1990; Balswick & Balswick, 2006: 24). 그러므로 여성이 ‘돕는 배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회복한다면, 보다 더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된다.

(2) 잘못된 동기로 왜곡된 결혼관계

결혼을 통하여 남자와 여자가 각자의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두 사람의 육적 연합뿐 아니라 영적 연합도 포함하는 친밀한 관계(intimacy of union)가 된다는 의미이다. 에덴동산에서 두 사람은 별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친밀한 관계였다. 생각과 계획, 꿈과 목표, 일상의 관심사, 그리고 육체적인 관계를 함께 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Shaap, 2002).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가능한 것들이었다. 인간에게 지식이나 자신의 성취를 기대하며 노력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결혼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것 자체는 이기적이거나 죄악 된 속성과는 무관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은 다른 창조물과 달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 맺는 독특한 기능을 가지도록 하셨기 때문이다(Crabb, 1992).

그러나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인간의 본성이 빛나게 하였고 ‘서로 사랑하는 능력’에 문제를 야기하며 온전한 친밀감으로 서로 연합하는 것을 방해했다. 범죄 후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이 되었다. 그리고 어떠한 깊은 교제에서도 친밀감과 사랑의 충족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바르게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인간이 하나

님을 사랑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두 개의 큰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막 12:30)는 것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다(막 12:31).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거짓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요일 4:20).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을 통하여 배우자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된다. 인생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결혼도 역시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기 때문이다(Smith, 2010).

인간의 바람직하지 않은 모든 행동은 마음속에 존재하는 자기중심적인 소망과 욕구를 따를 때 나타난다. 이러한 욕구를 구약에서는 ‘우상’이라 하고, 신약에서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한다(김준수, 2012).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며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라(신 4:16-20)고 명령하셨지만, 세상에는 하나님 이외에 예배할 수 있는 대상들이 무수히 많다. 사람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맹목적으로 집착하거나 예배하는 대상이라면 우상이 될 수 있다. 심지어 편안함을 추구하거나, 기대하거나 피난처로 삼는 대상, 또는 책, TV 쇼, 일, 그리고 취미생활과 같이 해롭지 않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들 중에도 우상이 숨어 있다(Smith, 2010).

또한 인간이 즐거움, 희망, 그리고 소망을 품게 되며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는 것들 중에도 우상들이 교묘히 숨어 있다. 이러한 우상이나 육신의 정욕은 결혼생활을 왜곡시킨다. 결혼관계에서 무엇인가 좋아하고 원한다고 그 마음 자체가 반드시 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얼마나’ 원하는가 하는 마음의 동기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Welch, 1994). 죄악 된 마음의 동기는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

도록 하므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자신이 더 소중하고, 자기 생각이 옳으며, 하나님이 없이도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세상의 왕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게 한다(Tripp & Lane, 2009). 즉, 잘못된 동기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서 벗어난 왜곡된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당연한 줄로 여기게 한다. 남편이나 아내가 타인의 인정이나 승인, 또는 평안을 얻고 싶은 자기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을 조정하거나 권력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대신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된 반응이다(Welch, 2003). 이러한 태도로는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다. 대신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며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사랑하며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며 느낄 수 있도록 하셨다(창 1:27).

결혼관계에서 상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자신의 필요를 얻고자 애쓰기만 한다면 두 사람 모두 상처를 입게 된다. 나아가 서로에 대한 왜곡된 해석과 접근은 부부상호관계가 더욱 황폐해져 가도록 한다. 시간이 갈수록 부부는 마음의 벽을 쌓으며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서로 애쓰게 된다. 다음은 결혼에 관한 성경적 관점을 살펴보겠다.

(3) 바람직한 결혼생활을 위한 성경적 관점

성숙한 부부관계는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이것은 단지 결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배우자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하고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 가며 하나님의 사랑이 배우자에 대한 사랑의 근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Smith, 2010). 인간의 최악 된 자기중심성은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고, 타인을 탓하거나 환경에서 모든 원인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진정한 부부간의 사

량을 회복하려면 자신의 상처만 바라보는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직면하고 상대방 역시 상처 입은 인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배우자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Keller, 2011).

기독교 상담자는 부부가 서로 자신의 관점에서 방어하던 삶의 태도에서 배우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모자라는 점들을 자각하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도와야 한다(김미경, 2010).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본질은 자신에게 관심 갖는 것만큼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다. 배우자를 판단하고 비난하거나 지시하는 대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자세로 다가가야 한다. 이것은 온유와 친절과 기쁨으로 화평하기 위하여 자신을 절제하는 것을 의미한다(Tripp, 2015). 이것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직면하고 올바르게 깨달아야 한다. 분노하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는지, 더 이상 희생하고 배려하는 것을 그만하고 싶은지 또는 아직도 자기연민에 빠져 우울하고 무기력한지를 살펴야 한다. 그 다음, 배우자가 혹시라도 인격적으로 상처 주는 방식으로 또 다시 반응을 할지라도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배우자의 필요를 다루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개개인이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깊이 믿어야 한다(Tripp, 2015).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은혜와 용서(grace and forgiving), 마음의 동기(heart), 겸손과 섬김(humility and servanthood)은 성숙한 결혼생활을 위하여 중요한 것들이다. 은혜와 용서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어졌다. 결혼관계에서도 서로에 대한 은혜와 용서가 절실히 요구된다. 왜냐하면 비록 배우자가 훌륭해 보이는 겉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의 내면에는 인간의 죄악 된 본성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Spencer, Celestia & Tracy, 2009). 용서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한다. 그러므로 상대를 용서한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반영한다(김준, 2012). 하나님은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유지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김준, 2017).

부부간에 발견되는 비난, 경멸, 방어, 그리고 담쌓기의 태도는 소통을 방해하는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네 가지 독’이다(Gottman & Silver, 2016).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나누며 서로 용서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요소들이다. 갈등하는 부부간에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가를 살피고 바꾸도록 돕는 것도 그들의 갈등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나아가 그 행동을 하게 되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변화하며 성숙해 가도록 돕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배우자를 앞세우고 섬기려는 겸손과 섬김의 마음가짐(막 9:35)을 남편과 아내가 함께 실천한다면 진정한 친밀감에 이를 수 있다. 남자가 부부간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먼저 사랑을 시작하신 것처럼 남편이 먼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존경과 힘을 가졌지만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힘을 사용하신 것처럼 남자는 가족을 보호하며 가족 내 규칙을 정하고 성숙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과 친밀감으로 머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족의 존경을 받게 되고 서로 능력을 주는 관계로 성숙해 간다(Spencer et al, 2009). 결혼관계에서 언약을 바탕으로 은혜 안에서 친밀감을 나누며 함께 성숙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서로에게 주게 될 때, 결혼생활의 회복탄력성은 높아진다. 그리고 성숙한 결혼관계가 유지된다(Balswick & Balswick, 2006).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성숙한 자가 아니라면 아내는 과거의 상처와 고통에 머무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어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바울은 아내에게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

게 하듯”(엡 5:22)하여 남편을 신뢰하며 존경하는 ‘강력한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권면한다. 아직은 미성숙한 남편이 자신을 존경하며 신뢰하는 지혜로운 돕는 배필을 통하여 그 동안 누려보지 못했던 은혜를 아내의 헌신과 노력을 통하여 경험하면서 성숙한 남편으로 성장한다. 성숙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엡 5:25) 목숨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는 가정의 머리가 된다.

에베소서 5장 22-25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살펴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곡된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바로 잡아주시는 순서이다. 그러나 아내가 받은 상처와 고통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충분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 부족한 상태의 남편이 저절로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 성숙하지 않는다. 또한 피차 복종하는 부부가 되기 위해 성숙한 사람에게 먼저 복종하기를 실천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아내가 ‘강력한 돕는 자’의 역할을 평안함 속에서 잘 감당하며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할 때 남편은 그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머리됨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편이 될 수 있다. 다음은 부부갈등과 결혼생활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겠다.

2) 부부갈등과 결혼생활에 관한 선행연구

(1) 결혼위기의 원인

박태영 외(2012)는 이혼위기의 원인은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성생활의 문제, 그리고 의견불일치라고 밝혔다. 그리고 드러난 원인의 이면에는 원 가족과의 미분화,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 자녀양육방식의 차이와 배우자 원 가족과의 갈등 등이 부부의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말한다.

Sigmund Freud는 인간은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스러운 존재(insatiable)라고 명명하였다(Hendrix, 2008).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이미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 가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부부 갈등의 현장에서 각 배우자는 원 가족으로부터 전수된 상호작용방식, 의사결정방식 및 대화방식을 반복적으로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대부분의 경우 부부는 갈등을 촉발시키는 순환적인 상호작용방식을 가지며, 자기 중심적인 의사결정방식을 고집한다. 원 가족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미분화된 사람은 배우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조지용, 박태영, 2011). 어머니 자신의 부정적인 양육의 경험은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남편이나 시부모, 친구들, 상담자 등과의 새로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부정적인 양육경험을 극복할 수 있다(이문희, 이수림, 2015). 그러나 부정적인 양육경험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들의 결혼생활은 쉽게 위기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Hendrix는 1980년대 말에 이마고(Imago) 치료방법을 개발했다(Hendrix, 1988; 송정아, 2005: 262-263 재인용). 이마고란 라틴어로 이미지를 뜻하며 아주 어린 시절 양육자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무의식에 저장된 이미지를 뜻한다. 이것은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결혼생활을 할 때 무의식에 저장된 기억에 의해 반응하도록 한다(Hendrix, 2008). 이마고는 발달단계에서 잃어버린 자아를 무의식적으로 찾게 하며, 자신과 같은 지점에서 상처받은 사람에게 끌려 더 많은 갈등관계를 경험하게 한다(송정아, 2005). 총 38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이마고 부부치료 연구에서 서로 반대되는 유형의 배우자에게 매력을 느끼며 선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결혼의 현실 속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자 전원이 기독교인 또는 목회자였으

나 결혼관계 내에서 서로 복종하기를 실천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송정아, 2005).

의사소통기술과 분노조절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결혼위기에서 부부는 자신들의 결혼생활을 '무의미한 삶'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혼위기에 대처를 하는 부부들의 유형은 상담을 받으며 문제를 인식하고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려는 화합형, 이혼을 준비하는 합의형, 마지막으로 배우자를 용서하기 힘들어 차라리 혼자 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며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거부형으로 구별되었다(강희숙, 양정옥, 2012). 부부의 위기대처 방식에 따라, 관계가 회복되거나 또는 어려운 상태에서 헤어지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한다.

여성이 남성의 성격적 특성을 이해한다면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남성은 위협을 감지할 때 여성들보다 더 강하게 '싸우거나 도망가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협의 종류에 따라 여성보다 남성은 더 강하고 더 극적인 신체적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남성이 감정의 홍수에 더 잘 빠지며 더 오래 각성상태에 머물게 된다. 그러므로 남성이 마음이 심하게 동요된 상태에서는 생각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을 더 쉽게 할 수도 있다(Gottman & Silver, 2016). 다음은 중·노년기를 대상으로 한 결혼생활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겠다.

(2) 중·노년기 부부갈등

40-65세의 기독교중년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부간 의사소통 방식, 자아탄력성과 성적친밀감은 부부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부부간 성적친밀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정순례, 2014). 부부간의 헌신과 책임이 높을수록, 친밀한 애정관계가 좋을수록, 함께 즐기는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그리고 부부간 의사소통과 가사분담 인식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헌신과 책임에 대하여 부적상관을 가졌다(조혜숙, 2013). 전통적인 헌신에 대한 부담감이나 헌신에 대한 강요는 중·노년기 결혼생활의 평화를 깨뜨리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은퇴자 부부의 상호작용패턴은 은퇴 전 부부관계와 밀접한 상관을 가지며 은퇴 후 시점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은퇴 전에는 직장이라는 완충지대에 잠재해 있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은퇴초기에 빚어지는 갈등이나 부적응양상은 부부의 심각한 단절과정이 아니라, 부부가 이전의 상호작용패턴을 나름대로 ‘재적응해 가는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 은퇴 후 남편의 경제능력유무는 부부관계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으나 모든 부부에게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성영모, 오제은, 2014). 결혼에 대한 인식과 지나온 삶의 여정은 부부의 노후안녕에 영향을 미치며 노년의 삶의 만족도와 많은 연관을 갖는다. 그러므로 어느 인생주기의 부부를 상담하든지 결혼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점검하고 형성하도록 돕는 것은 중요한 기독교 상담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3) 결혼위기 극복을 위한 개입방안

상담자가 적극적 공감과 자기개방, 그리고 원 가족탐색과 과정질문을 사용하여 내담자가 자신을 통찰하여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개입했다(박태영 외, 2012). 그리고 원 가족으로부터의 분화를 돕고, 부부역할 재조정을 위한 인식의 변화는 위기극복을 도왔다. 특히 역기능적인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방식에 대한 가족 치료적 접근은 상당히 유용했다(조지용 외, 2011). 부부 중 한 사람만이 상담을 받는 경우에도 가족치료 모델의 적용에 있어 충분한 의미를 가지며 한 사람의 변화는 배우자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박태영, 유유희, 박진영, 2013). 가족체계관점에서 볼

때, 한 사람이 상담을 통하여 그 사람의 비중과 역할을 달리할 때, 온 가족의 역동도 변화하면서 가족은 회복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유용한 상담방법으로의 접근과 함께 원 가족의 문제를 다루는 것도 매우 중요하나, 인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원죄성과 죄악 된 마음의 동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성경적 가치관을 활용한 기독교 상담전략의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더불어 부부의사소통 훈련, 자아탄력성 증진 및 성적친밀감 증진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정순례, 2014). 다음은 연구방법과 절차이다.

2. 연구방법과 절차

연구설계에 있어 사례를 정의하는 일과 사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중요하다(Yin, 2016).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계를 가진 체계(bounded system)내의 사례, 시간과 공간에 의해 경계를 가진 다중사례 연구를 실시한다(Creswell, 2015). 다중사례연구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사례를 활용하는 것을 뜻하며 단일사례연구보다 분석이 용이하고 연구 결과가 보다 설득력을 갖는다(Yin, 2016).

1) 사례연구 대상

사례연구의 대상은 연구목적에 해당하는 2명의 60대 아내들과의 상담사례이다. 이들은 주 1회 12-13회의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을 근거한 기독교 상담을 받았다. 연구대상자 K는 천주교인이며 연구대상자 C는 개신교인이다. 이들은 예배에 주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각각 현재의 남편과 36년 전에 결혼했고, 결혼 5년 이내에 시작된 심각한 부부갈등을 경험했다. 그리고 결혼 10여년 무렵 남편의 변심과 외도로 결혼이 단절되었다. K의 남편은 이혼 후 다른 여

성과 결혼했고, C의 남편은 별거 후 다른 여성과 동거하였다. 세월이 흘러 다른 여성과의 남편들의 동거와 결혼은 끝났고, 부부간 합의에 의해 재결합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결혼생활 역시 평탄하지 못했고 언어 및 신체적 폭력경험이 있다. 자녀의 적극적인 권유로 상담을 시작한 사례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참여자	참여자 K	참여자 C
나이 (성별)	63세 (여)	61세 (여)
신앙 연수	천주교 15년 이상	개신교 30년 이상
첫 결혼 시기	36년 전	36년 전
결혼 상태	이혼 후 재결합	별거 후 재결합
자녀(상담 권유자녀)	3녀(만딸)	2녀 1남(만딸)

2) 자료수집 과정

자료수집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자료수집의 형태는 관찰을 포함한 기본적인 정보유형, 면접, 문서, 그리고 시청각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Creswell, 2015). 연구 자료는 개인상담 일지와 면접관찰기록으로부터 수집하였다. 사례연구를 위하여 자료수집 전반에 걸쳐 연구문제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인지하며 때때로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서 연구 자료로부터 수집되는 연구대상자들의 행동, 태도, 인지 및 상황과 느낌을 소상히 밝히려고 노력하며 수집하였다(Yin, 2016).

3) 자료 분석방법

사례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방법이 미진하므로 '연구자의 학문적 성향과 재량'에 훨씬 많이 의존한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사례연구를 위하여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고 주의 깊

게 성찰하면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분석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Yin, 2016). 자료 분석방법으로 연구문제에 따라 두 사례의 중심 주제를 찾고 하위주제와 상위주제로 분류한 후, 사례들에 걸쳐 있는 사례들의 의미에 대하여 주장이나 해석한다(Creswell, 2015). 이러한 주장이나 해석을 위한 반복적인 설명과정에서 연구자는 초기의 주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연구자의 선택적 편의(selective bias)가 연구과정을 끌고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Yin, 2016).

연구자는 본 연구자료 분석을 위하여 상담기록과 면접관찰한 내용을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이들의 결혼위기 경험,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것”(창 3:16하)이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마음의 동기들과 깨달은 점들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초기에 설정한 연구문제에 합하는 것으로 성경적 관점의 중요한 요소를 연구하려는 의도이다.

4) 연구의 윤리성과 엄격성

질적 연구에 있어 연구의 윤리는 연구자의 성실하고 진실한 태도에 의해 확보된다. 연구대상자의 사적인 비밀을 보장하고 자료를 거듭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최옥채, 2008). 연구의 윤리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에 대하여 연구대상자들에게 설명했고, 개인정보 활용에 관하여 서면으로 제시했고 본인서명을 받았다. 내용을 각색하여 본인이라는 것을 알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과 원하지 않을 시에는 언제라도 자료사용에 대한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단, 독자가 읽고 사례개요를 알 수 있도록 나이와 성별, 전반적인 사례개념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대상자들이 이해했다.

연구의 엄격성을 위하여 성경적 상담을 전공한 3명의 상담자와 질적 연구논문준비 중의 박사수료자들과 자료에 대하여 의논하고 연구의 타당성을 살피면서 자료를 분석했다.

3. 연구결과

1) 그들의 위기: 결혼생활 과정에 나타난 주제들

(1) 서로 다른 기대: 끊임없는 잔소리, 남편에 대한 집착, 남편의 폭언과 폭력
결혼 초기의 10여년은 출산과 자녀양육 등으로 아내는 과로에 지쳐 남편의 도움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남편은 사회적 성취를 위해 정신없이 달리며 노력하는 시기로 가사와 자녀양육은 아내가 알아서 스스로 해결하며 자신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다보니 끊임없는 아내의 도움의 요청이 남편에게는 귓가에 들리는 확성기의 소음으로 인식될 뿐이었다. 그리고 남편은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아내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적으로 표현했다.

“그 때는 애들에게 손이 많이 갈 시기였으니까 혼자서 양육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바쁜 남편인 줄 알았지만 도와달라고 말했죠. 남편은 당연히 도와야 하고 도와줄 줄 알았어요. 자기애들이 싫어요.”(K)

아내는 남편의 도움을 끊임없이 갈망하며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남편의 미숙하고 이기적인 반응은 부부간 신뢰를 여지없이 깨뜨렸다. C는 친정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닦고 먹이며 집안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았다.

“처음 결혼하고 애들이 어릴 때는 정말 즐거웠어요. 나를 열심히 남편을 위해 음식도 만들고 애들도 잘 돌본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내 방식의 표현을 남편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나보고 말이 통하지 않는대요. 재미가 없대요. 하지만 그 말을 귀담아 듣지는 않았어요. 이해할 수 없었죠. 그 때는.”(C)

C는 남편이 가족을 돌보는 아내의 헌신 함께 친밀한 정서적 관계를 기대한다는 것을 진작 깨닫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가사에 헌신적이었던 어머니도 나중에는 아버지께 서운해 했으며 많이 다투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마도 집안일과 애들 밥 잘 먹이는 것 말고 남편은 나에게 원하는 다른 것이 있었나 봐요. 나한테 맨날 말이 안 통한다고 하던 남편의 말을 생각해 보면요.”(C)

당시에는 남편이 아내의 따스한 배려와 지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간과했다. 단지 집안일을 잘 꾸리고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아내의 역할을 충분히 이미 잘하고 있다고 믿었기에 즐겁게 잘 살았던 것 같다.

(2)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소통부재, 쌓여가는 원망과 불신

이러한 과정에 부부의 가슴에는 분노와 원망이 쌓이기 시작한다. 아내는 끊임없는 요구로, 남편은 폭언이나 폭력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이러한 소통방법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기보다는 점점 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매달리게 하며 더욱 위축되어 자신의 아픔과 상처에만 집중하게 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소리를 질렀고, 몹시 화가 나는 날이면 물건을 던지기도 했어요. 나는 우는 날이 많아졌고, 남편은 그렇게 한바탕하고 밖으로 나가면 오랜 시간을 보내다 오는 날이 늘어났어요.”(K)

이러한 태도는 부부 사이에 커다란 담을 높이 쌓아만 갔다. 아내는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애들을 잘 돌보는데 모든 열정을 쏟았다. 그렇게 살

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남편은 더 자상하고 애정이 넘치는 아내를 원했던 것 같다.

“남편은 참 외롭게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자상한 보살핌을 원했나 봐요. 나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면서 무슨 일이든 자기 가 다 결정하고 나서 말해 주는 거예요. 나도 의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다툼을 참 많이 했죠.”(C)

부부는 서로의 소망하는 바를 상대가 먼저 알아주기를 기대하며 목소리를 높여 갔지만 마음의 문은 서서히 닫아 버렸다.

(3) 벼랑 끝에서의 선택과 결정: 이혼과 별거

부부간의 친밀감과 열정이 점차 사라져 갈 즈음 남편들은 밖에서 말이 통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이혼과 별거를 요구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아내들은 관계회복을 위하여 나름 애를 썼지만 이미 얼질러진 물이었다. 아내들에게 예고와 준비 없이 닥친 재앙이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말이 통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이혼을 해 달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그럴 수가 없죠. 날마다 울었어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어요. 매일 큰 딸을 붙잡고 아빠 흉을 보고 어린 딸은 속상한 엄마를 위로해 주고… 몇 년을 버티다 할 수 없이 이혼해 주었어요.”(K)

“다툼이 잦아들 무렵, 어떻게 만난 여자가 꼬리를 쳤나 봐요. 남편은 집을 나가서 아예 그 여자와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애들은 자주 만나러 왔어요. 애들은 아직 어렸으니까 상황을 잘 몰랐을 거예요.”(C)

이렇게 부부의 결혼생활은 단절되었다. 가슴 아픈 부부갈등의 여정이

일단락된 후 겪게 되는 또 다른 형태의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은 아내들의 삶을 팍팍하게 했다. 다행이 두 사례 모두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남편의 경제적 지원과 자녀들에 대한 지지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어머니의 심리적 어려움을 곁에서 가장 많이 들어주고 지지해 주었던 큰 딸은 장성한 후, 자신이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에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곤 하여 힘들었다고 말했다.

(4) 희망의 새 출발, 그러나! 다시 제자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부부는 재결합을 결심했다. 재결합한지 K는 9년, C는 8년째이다. 그 동안 아내들은 관계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당신과 함께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당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더 이상 같이 살아 가기가 나도 정말 힘들다.”(K)

“여전히 말이 통하지 않고 당신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니 함께 지내기가 어렵다. 당신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C)

그러나 남편에게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남편이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들어 억울하고 분하기 그지없었다.

“남편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빙빙 돌리며 남편의 눈치를 보는 내가 너무 싫어요. 또 남편이 화가 나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 또 나가서 어떤 여자를 만나는 걸까 의심하면서 불안해하는 내가 너무 싫어요.”(K)

남편의 폭언과 폭력을 참으면서 아내의 자존감과 자신감은 점점 떨어져 갔고 친구들과의 만남조차 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재결합 후 시간이 갈수록 불면증과 가슴 두근거림이 점점 심해지고 화가 치밀어 올라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 때가 많다. 몇 년째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봤지만

신체적 이상은 없다고 한다.

“남편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퍽퍽 막혀요. 말은 얼마나 잘 하는지 항상 자기만 옳다고 하니... 잠도 안와요.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쳐요. 어떤 때는 내가 여자로 보이지도 않는데요. 참!”(C)

남편은 아픈 아내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면 아내의 신경을 건드리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사랑과 갈망을 느끼면서 결혼이 다시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엇나가는 관계로 살고 싶지도 않다. 두 아내들은 남편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나름 애를 써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고, 관계는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상담을 의뢰하였다.

2)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본 아내마음의 동기

(1) 남편은 나의 소망과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

아내는 남편에게 잔소리하면서 그가 내 남편이라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충족시켜야 한다고 또는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 아내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명령, 폭언이나 폭력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반응한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남편과 아내 모두 최악 된 자기중심성을 가진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아내가 남편에 대해 자신의 소망과 요구를 들어 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믿는 것은 남편을 하나님 대신 이상화한 결과이다.

(2)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

결혼을 통하여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이 더욱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먼저 남편에게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는 대신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매달려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태도로 남편을 조정하게 한다. 그리고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을 때 분노와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자아상 등을 가지게 되어 우울하고 불안한 일상을 살게 된다.

3) 함께 걸어가는 노년기를 위하여: 상담을 통하여 깨닫게 된 점들

60대 초반의 연구대상자들은 살아 온 연륜만큼이나 자신의 행동이나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분별력과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기도와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평탄하지 않아 힘들었고 가슴은 답답하였다. 남편과 맞지 않은 성격 탓과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도 있었지만, 자신의 소망과 기대를 남편을 통하여 이루려 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소망과 기대는 '강력한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방해했으며, 수동적인 입장으로 남편을 조정하며 사랑과 평안을 얻으려는 태도를 가지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들은 결혼생활이 드라마틱한 만큼 노력하고 애써 본 방법들도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돕는 배필'이라는 아내의 성경적 관점의 정체성을 비교적 쉽게 수용하고 자신의 이전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면서 변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남편의 성격을 바꾸려던 노력 대신 자신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바꾸려 노력하였다. 아내들은 자신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남편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져 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음 <표 2>는 아내들의 관점에서 상담을 통하여 깨달은 내용들이다.

〈표 2〉 상담을 통하여 깨닫게 된 점들

드러난 현상	하위 범주	상위범주
사랑과 인정받지 못했던 남편 행복하지 않았던 유년시절	남편의 원 가족 이해	도움이 필요한 남편
남성으로서의 남편 이해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이해	
폭언과 폭력 뒤의 남편의 진심		
객관적인 나의 모습	나의 잘못 수용하기	내가 커진 것 같아요
성숙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	남편 용서하기	
남편의 진심에 대한 오해		
남편의 노력을 인정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강한 언어 뒤에 숨겨진 나약한 남자	사랑하며 존경하며	강력한 돕는 배필
칭찬과 격려의 새로운 언어연습		
남편에게 복종하는 노력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나	
스스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나		

(1) 도움이 필요한 남편: 남편의 원 가족 이해, 여성과 다른 남성을 이해
완벽한 부모는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남편도 부족한 그의 부모로부터 상처 입은 피해자이다. 그러므로 남편은 태생적으로 부패하고 죄악된 속성을 가진 죄인이며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이다. 이것은 애초에 아내의 소망을 완벽하게 채워 줄 능력이 남편에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은 여성과 완전히 다른 재료로 창조되었으며 상황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방식이 여성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성의 자기 중심적인 관점은 배우자를 온전히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남성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남편의 공격적인 행동을 부추기는 언행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반면 남편 역시 존경과 사랑과 인정받기를 원하며 자아의 성취를 위한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내가 고대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남편도 남편과 아버지 노릇을 잘 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점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다.

“나는 상담실에 와서 이야기를 하니 후련한데, 남편은 이야기할 테도 없을 텐데 내가 잘 해 줘야겠어요. 그런데도 남편이 말하는 것을 듣노라면 가끔은 확 올라올 때가 많아요.”(K)

“휴대이하고 뼈를 비 내리는데 두면 흠은 금방 흘러내리잖아요. 뼈는 끝까지 남고. 그러니까 여자의 재료가 더 강한 건데 그걸 몰랐네요.”(C)

자신의 아픔과 고통만을 생각하고 억울해할 때 볼 수 없었던 남편의 고통과 외로움과 갈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아내가 고통 속에 있는 동안 남편은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즐기며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남편의 입장에서 똑 같은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정도의 고통을 느끼며 다른 반응을 하며 살아왔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2) 내가 커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의 정체성 회복

연구대상자들은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름을 인식했다. 남편 역시 아내의 따스함과 존경과 사랑을 필요로 했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그 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남편을 대했던 점들을 회개하였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서로의 왜곡된 인식이 부부관계를 심각하게 이끌어 갔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남편의 죄악 된 말과 행동을 용서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아직도 남아 있는 폭언이나 강요 등의 습관적인 태도를 이해하며 건강한 대화방법으로 반영해 줄 만한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회유하거나 비난하거나 빙빙 돌려 말하는 대신 남편을 존중하는 진실 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되었다. 물론 하루아침에 말하는 습관이 완벽하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의 효과를 경험하면서 말의 힘을 깨달으며 더욱 언어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가 쭉쭉 커진 것 같아요. 더 이상 마음 졸이지 않아요. 남편의 진

심도 보이고 요즘은 편안하게 남편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난 번 부모모임 때 사람들 앞에서 제 칭찬을 하는데 진심으로 들렸어요. 전에는 진심일까 의심했는데”(K)

“내가 말하는 방식이 좀 명청하긴 했어요. 그 때 그 때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편이거든요. 요즘은 조금 더 생각하고 남편한테 말을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요.”(C)

이러한 노력으로 변화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본심을 편안하게 표현하기 시작했고 부부는 점점 편안하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물론, 아내가 기대하는 대로 남편이 바뀌지 않는다. 아내 역시 남편이 원하는 완벽한 여성으로 바뀔 수 없다. 단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함께 하겠다는 진심을 공유하게 되었다.

(3) 강력한 돕는 배필: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성숙해가는 나

남편에게 ‘강력한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두려움이나 소망을 이루어 줄 대상으로 남편을 보는 대신, 당당하고 안정된 동반자로 남편의 부족함을 채우며 여생을 함께 꾸리려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렇게 자세를 바꾸면서 그 동안 불편하게 느꼈던 남편의 태도에서 아내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더욱 느낀다.

“남편과 장기간 여행을 다녀왔어요. 전에는 여행을 가면 그 기간을 어떻게 견디나 고민했는데 이번에는 서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긴장하지도 않고.”(K)

“남편은 옛날부터 함께 여행가자고 말했어요. 그 동안 짜증도 났고 몸도 아프다고 핑계를 대면서 안 간다고 했는데 요즘은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함께 가까운 곳을 다녀 왔어요. 나를 챙기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남편이 되게 좋아하네요.”(C)

함께 여행하고 싶다는 남편과 편안하게 여행을 잘 다녀왔다는 소식을 전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성장해 가기를 원하신다. 아내는 자신이 더 이상 남편에게 수동적이거나 억눌림에 의한 심리적 고통 때문에 신음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강력한 돕는 배필'로 남편과 한마음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남편의 사랑을 느끼고 이해하며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이다.

4. 연구논의: 결혼위기 극복과정 분석

모든 상담에서 내담자가 문제의 핵심을 깨닫는다고 일상에서의 변화가 곧이어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제의 핵심을 깨닫고 올바른 실천을 결심하더라도, 상대방의 습관적이며 일상적인 부정적 반응에 따라 처음의 결심이 흔들리거나 포기하도록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두 사례에서도 그러한 갈등과 후퇴의 시간이 있었다. 부부간의 진정한 대화란 단지 거짓말하지 않으며 비난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정직과 신뢰의 태도로 서로 하나 되는 것과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올바른 방법으로 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Smith, 2010). 이들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어 주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윤리적 차원이나 심리적·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들을 다루어 주어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세를 깊이 깨닫도록 돕는 것이 기독교 상담의 목적이다(Jonson, 2012).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올바른 대화방식으로 변해 가려는 노력은 결혼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회복의 열쇠가 된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해 사용하시는 중요한 도구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먼저 개인적인 하드

웨어가 다르다. 그리고 개인의 경험과 이미 형성된 가치관도 다르다. 마지막으로 사람마다 죄로 인한 연약함도 다르며 은혜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 영역과 속도도 다르다. 그러나 이 모든 차이로 인하여 각 사람의 죄악 된 깊은 마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며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변화가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는 불편한 은혜이다. 하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더욱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Tripp, 2015).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남편의 ‘강력한 돕는 배필’이라는 아내의 역할을 분명히 깨달을 때, 보다 성숙한 연합과 이해, 배려와 사랑의 결혼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점에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본 연구의 사례들에서 드러난 결혼위기 극복과정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결혼위기 극복과정

	상담진행	상담과정 내 반응	상담을 통한 변화
상담요소	남편에 대한 이해	남편의 환경이해와 수용	남편 용서하기
	아내의 자신 이해	성경적 정체성 이해	나의 부족한 점 수용하기
	부정적인 피드백의 영향	상담자의 지지 → 노력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음	긍정적인 서로 간 피드백 하나님 은혜 바라보기
	부부간 신뢰다루기	의심과 왜곡된 인식	애쓰는 남편 마음이 보임
	갈등을 야기하는 자신의 말과 행동 점검	실천하기가 억울함 남편의 반응에 실망	간과 또는 정직하게 마음과 생각 표현하기
동기변화	나의 소망과 욕구에 집중	—————▶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기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의 왜곡된 결혼관	—————▶	강력한 돕는 배필로 성장

매일의 삶은 한 차례의 각성으로 완전히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매일 새롭게 비상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끊임없는 영적 성숙을 이뤄가야 한다. 죄의 대가대로 아내는 남편을 원하며 조정하려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기 위해(창 3:16하) 죄악 된 말과 행동을 충실히 실천하며 살아간다. 그 동안 아내들은 남편이 자신들의 소망과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라고 굳게 믿으며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심하게 남편을 밀어내고 있었는지를 깨닫지 못했다.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남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던 것을 멈추고 그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했을 때, 남편도 아내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관계회복을 위하여 애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 깨달은 후 억울하며 답답함, 분노, 불면증과 신체적 질병 등이 완화되었다.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한 부부관계로 서서히 바뀌어 가기 시작했다. 상담을 마무리하고 나서 종종 심각한 갈등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점진적으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진다면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서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편안하게 감당할만한 부부관계가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60대 초반의 2명의 아내들의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결혼생활 과정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성경적 관점의 결혼관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수동적이고 방어적이던 태도에서 좀 더 편안하게 ‘돕는 배필’의 아내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인 결혼위기상담에 다음의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1) 서로의 성장 배경을 살펴, 상대의 모습을 이해하고 인정하도록 돕는다.
- 2) 남녀의 차이, 개인성향의 다름에 대하여 다각도에서 이해하도록 돕는다.

3)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진실 된 대화방식으로의 바꾸는 연습을 돕는다.

4)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올바른 성경적 결혼관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특히 ‘강력한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남편도 사랑과 지지와 존중이 필요한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돕는다. 부부간의 영적 연합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용서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엡 4:26)는 말씀을 되새기며 분노로 남편을 대하기 전에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며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 안에서 변화와 영적 성숙을 이루어간다면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며 섬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섬김은 결코 아내가 손해 보는 것이 아니다. 섬김의 과정을 통하여 아내는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을 얻기 때문이다(엡 5:25). 머리로 차갑게 이해한다 해도, 가슴으로 몸의 행실로 나타내기엔 걸림돌이 많다. 이것은 바로 소망과 필요에 대한 욕구가 자신에게 예배의 대상이며, 남편을 자신의 소망이나 욕구충족의 공급자로 여긴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진정 ‘강력한 돕는 배필’로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능동적이고 건강하며 평안한 아내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을 절제하고 제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III. 닫는 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완벽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의 대가는 결혼관계를 왜곡시켰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창 3:16하)는 말씀대로 아내는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들어줄 능력 있는 대상으로 남편을 인식하여, 기대하며 요구하게 되었다. 또 남편은 아내를 피차 복종하는(엡 5:21) 관계에서의 동등한 인격적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마음대로 요구하거나 명령해도 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바람직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성경적 가치관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실천이 필요하다. 특히 아내들에게 ‘강력한 돕는 배필’ 로의 정체성 회복이 절실하다. ‘돕는 배필’ 원문의 의미는 ‘채우다, 돕다, 감싸다’ 는 뜻이다(로고스 편찬위원회, 2011). 오히려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여성이 연약하여 보호를 갈망하거나 능력이 부족하여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부부관계는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는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돕는 관계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부의 참 모습이다.

연구결과, 아내들에게 ‘강력한 돕는 배필’ 로의 정체성 회복을 도와주므로 이들이 결혼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했다. 60대 초반의 아내들은 삶과 신앙연륜을 통하여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의 노력으로 결혼위기 극복이 어려웠다는 것을 체득했다. 이러한 경험은 성경적 관점의 정체성 회복으로 비교적 빠르게 나가도록 도왔다. 상담현장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상태에 따라 성경적 관점이나 직면으로 안내하는 시간을 조절해야 하겠지만, 결혼위기상담에 있어 성경적 가치관에 관한 안내와 이해를 돕는 것은 중요한 기독교적 상담요소라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는 박태영 외(2012) 선행연구에서의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성생활 문제, 의견 불일치, 원 가족의 영향과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 등이 부부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거나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또 성영모 외(2014)의 은퇴 후 부부갈등은 은퇴 전 부부관계와 밀접한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처럼, 연구대상 부부가 겪는 결혼위

기도 부부의 젊은 시절 결혼생활의 형태를 반복한다는 점에서 은퇴전후의 부부관계는 상관이 있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아내들에게 ‘강력한 돕는 배필’로의 정체성 회복을 돕는 것은 결혼위기사담에 있어 중요한 기독교적 상담요소라고 본다. 나아가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결혼위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인간발달단계에 맞추어 각 연령대의 결혼위기사담을 위한 성경적 관점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또한, 남편관점의 사례분석 및 성경적 결혼관에 관한 연구는 기독교적 결혼위기사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단 2명의 사례를 분석한 점은 일반화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강력한 돕는 배필’로의 정체성 회복을 돕는 기독교적 상담은 모든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요소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 강희숙, 양정옥 (2012). 이혼위기에 처한 부부들의 부부갈등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2), 183-199.
- 김미경 (2010). 중년 부부 위기와 기독교 상담. **복음과 상담**, 15(2), 137-159.
- 김준 (2008). 성경적 관점에서 본 결혼/부부 상담의 용서 문제. **복음과 상담**, 10(1), 147-167.
- 김준 (2017). 부부갈등과 용서: 자기심리학과 기독교 상담적 관점. **복음과 상담**, 25(1), 9-34.
- 김준수 (2012). 인간 동기의 심리학적 이론과 성경적 이해. **복음과 상담**, 18(1), 106-130.
- 로고스 편찬위원회 (2011). 스트롱코드 히브리어 헬라이어 사전. 서울: 도서출판 로고스.
- 박진영 (2013). 부부갈등 문제를 가진 남편의 변화과정 연구: MRI의 의사소통 모델과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적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7(1), 57-83.
- 박태영, 김선희, 유진희, 안현아 (2012). 이혼위기에 있는 부부에 대한 가족치료 다중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1), 23-56.
- 박태영, 유용희, 박진영 (2013). 부부갈등 문제를 가진 남편의 변화과정 연구: MRI의 의사소통모델과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적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7(1), 57-83.
- 성영모, 오제은 (2014). 은퇴자 부부들의 부부관계에 대한 질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65, 251-280.
- 송정아 (2005). 이마고 부부치료 이론의 타당성 연구-배우자 선택과 이마고 형성 이론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6(1), 261-274.
- 이문희, 이수림 (2015). 부정적 양육의 대물림 극복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중년여성의 양육경험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6(5), 417-438.
- 정순례 (2014). 기독교 중년부부의 의사소통유형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자아탄력성과 성적친밀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22(2), 301-339.
- 조명기 (2008). 21세기 현대 한국사회와 기독교적 결혼관. **복음과 상담**, 10(1), 222-249.

- 조혜숙 (2013). 중·노년기 부부관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조절역할. *생애학회지*, 3(2), 1-19.
- 조지용, 박태영 (2011). 갈등으로 인한 이혼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부부의 부부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2), 41-62.
- Balswick, J., & Balswick, J. K. (2006). *A model for marriage*. Downers Grove, Illinois: IVP Academic.
- Bilezikian, G. (1985). *Beyond sex roles: What the Bible says about a woman's place in church and family*. Grand Rapid, MI: Baker Book House.
- Crabb, L. (1992). *The marriage builder: A blueprint for couples and counselors*. Grand Rapid,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 Creswell, J. W. (2015). 질적 연구방법론(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학지사. (원전 2013 출판).
- Gottman, J., & Silver, N. (2016). *가트맨의 부부 감정치유(최성애 역, What makes love last?)*. 서울: 을유문화사. (원전 2012 출판).
- Hendrix, H. (2008). *Getting the love you want: A guide for couple*. New York: St. Martin's Griffin.
- Hendrix, H. (1988). *Getting the love you want*.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 Jonson, E. L. (2012). 기독교심리학(전요섭, 김준수, 이은규, 안경승, 김영희, 변영인, 권은혜 공역, *Foundation for Soul Care*). 서울: CLC. (원전 2007 출판).
- Keller, T. (2011). *The meaning of marriages: Facing the complexities of commitment with the wisdom of God*. New York: Dutton.
- Leeuween, V., & Steward, M. (1990). *Gender & grace: Love, work & parenting in a changing world*.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 Powlison D. (2009). 성경적 관점으로 본 상담과 사람(김준 역, *Seeing with new eyes*). 서울: 그리심. (원전 2003 출판). 104.
- Shaap, J. (2002). 결혼, 하나님의 본래 의도(지선희 역, *Marriage God's original intent*). 서울: 예향. (원전 1995 출판).
- Smith, W. (2010). *Marriage matters: Extraordinary change through ordinary*

moments. Greensboro, NC: New Growth Press.

- Spencer, A. B., Spencer, W. D., Tracy, S., & Tracy, C. (2010). *Marriage at the crossroads: Couples in conversation about discipleship, gender roles, decision making and intimacy*. Downers Grove, IL: Inter Varsity Press.
- Tripp, P. (2015). *행복한 부부를 만드는 6가지 사랑의 약속*(김명희 역, *What did we expect?*). 서울: 아바서원. (원전 2014 출판).
- Tripp, P., & Timothy S. L. (2009). *관계가 주는 기쁨*(이명숙 역, *Relationships*).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원전 2006 출판).
- Welch, E. T. (2003). Motives: Why do I do the things I do?.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22(1), 44-56.
- Welch, E. T. (1994) Who are we? needs, longings, and the image of God in man.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3(1), 34-35.
- Yin, R. K. (2016). *사례연구방법*(신경식, 서아경, 송민채 공역, *Case study research*). 서울: 한경사. (원전 2014 출판).
- 나무위키-N포 세대. 2018. 3. 7 검색. <https://namu.wiki>.
- 통계청. 2017. 7. 15 검색. <http://www.kostat.go.kr>.

【 Abstract 】

Qualitative Case Study of the Experiences of Women
in Their Sixties Overcoming Marriage Crisis
-The recovery of confidence as spouse takes
on the role as a ‘strong helper’-

Lee, Soo Hee

SuJi Peacemaker Counseling Cente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Biblical perspectives on marriage crisis counseling by studying Biblical value of helping spouse. The research explores the marriage experiences of two wives in their early sixti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ir counselling records and observations.

Following are three questions that the research mainly focuses on. First, how? have their marriages been? Second, what were the motives that the wives had during the marriage? Lastly, how did recovering Biblical identity as ‘strong helper’ helped them become more mature wives?

The method of the research is quantitative case study. The research studies the Biblical viewpoint of ‘strong helping spouse’ and advanced research on marriage. It analyzes the counseling records and observations of their attitudes during the counseling process to examine the motives that wives had in their marriage. Lastly, the research examines how recovering identity as ‘strong helping spouse’ helped them overcome marriage crisis.

The conclusion of the research is that counseling emphasizing the recovery of the identity as ‘strong helper’ can help wives to overcome marriage crisis. It also shows that counseling can give them another chance to become more mature spouses. The wives in the research are in process of growing as the mature spouses due to the counseling.

Key words: overcome of the marriage crisis, case study, motives of heart, strong helper, Biblical counseling